

# 새로쓰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3판 정오표

(2022년 11월 14일 기준)

※ 본 정오표는 2022년 9월 14일 발행된 “새로쓰로스쿨형법선택형  
정지문핸드북” 제3판(2022년) 1쇄에 대한 내용입니다.

##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3판 - 정오표

내용 추가 및 오류 수정 (2022년 11월 14일 기준)

2022년 09월 14일 발행된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제3판에서 추가된(보완) 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정리한 정오표를 게재합니다. 수정 및 추가된 부분은 위치란에 표기해 두었습니다.

위치	수정사항
p. 20	<p><b>017</b> □□□</p> <p>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<b>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, 제2항에 따라</b>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·과실 혹은 유책·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<b>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</b>가 있다.</p> <p>▶ 법령에 의한 작위의무</p> <p>[辯8   法行34   法模15・20]</p>
p. 38	<p><b>144</b> □□□</p> <p>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인 甲, 乙이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의 샅대질을 피하려고 두어 걸음 뒷걸음치던 乙이 회전 중이던 기계 철받침대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에 <b>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.</b></p> <p>▶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없음</p> <p>[法行36・37]</p>
p. 47	<p><b>062</b> □□□</p> <p><b>법익침해</b> 후의 <b>승낙</b>은 유효하지 <b>않고</b>, <b>승낙한 이후에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.</b></p> <p>[辯5   法模14・22]</p>
p. 72	<p><b>068</b> □□□</p> <p>예비와 미수는 각각 형법각칙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<b>있고</b>, <b>예비죄의 경우에는</b> 구체적인 법정형까지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.</p> <p>▶ 법정형까지 규정되어야 예비 처벌</p> <p>[辯3]</p>
p. 164	<p><b>051</b> □□□</p> <p>甲과 乙이 ‘주간에’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<b>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.</b></p> <p>▶ 재물 물색시</p> <p>[辯2・5   法行30・31・35   法模16・19]</p>
p. 174	<p><b>114</b> □□□</p> <p><b>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</b>이 마치 「의료법」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 <b>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</b>,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진단, 치료 등 <b>요양급여를 실제로 제공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.</b></p> <p>▶ 의료인 자격 없음</p> <p>[辯5]</p>

p. 213

## 363 □□□

甲은 자신의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을 戊에게 양도하였다. 戊는 D를 속여 D로 하여금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. 그 후 甲은 위 송금된 돈의 일부를 인출하였다. 이 경우 甲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▶ 장물성 인정, 장물취득행위 부정

[辯1・3・4・8・10 | 法行35 | 法模16・17・21]